

제8회 동아시아 원자력포럼 개최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현안 및 SMR등 인접국 개발 동향 논의돼



11월 17일 동아시아 원자력포럼 실무회의가 온라인(zoom)으로 개최되었다.

제8회 동아시아 원자력포럼(East Asian Nuclear Forum)이 11월 17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KAIF),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 중국핵능행업협회(CNEA), 대만핵능급산업협회(TNA)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4개국 36개 기관 113명이 참석하여 3개 세션 12건의 발표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개회세션에서는 각국 원자력발전 현황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COVID-19 이후 발전소 운영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국가별 탄소중립 및 탈탄소 국가 선언에 맞춰 원자력발전 계획이 변경될 것임을 예고했고, 특히,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최근 5년간 복구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세션에서는 중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을 위한 Beishan 지하연구소 설계 현황, 일본 지층처분 사업 현황 등에 관해 발표되었고, 한국과 대만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을 공유했다.

마지막 세션인 〈원자력 혁신, 첨단 원자로 및 SMR 개발 동향〉에서는 한국의 i-SMR 기술 개발, 중국 SMR R&D 현황, 일본의 고온시험연구로(HTTR) 재가동 현황 등이 발표되어 4개국간 토론과 질의가 이어졌다.

제9회 동아시아 원자력포럼은 내년 11월 대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EANF 홈페이지(www.eanforum.org)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www.kai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IF**